

누구나 보고 느끼고 깨닫는 곳…"절, 삶, 영화"



삶이 물었고 영화가 답했다
이안 지음
담앤북스 펴냄/1만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의 말대로 불교라는 것은 어려운 범어나 한자로 새겨진 경전에만 깃들어 있지 않다. 삶 자체가 질문이자 화두인 것이다. 흔히 영화는 삶의 축소판이라고들 한다. 그러니 어느 영화인들 화두로 삼는 주제 하나 없는 영화가 어디 있으랴. 저자인 이안은 서울대서 미학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상문화이론과 영화학을 전공했다. 영화평론가, 대학에서 영화에 대해 가르치는 강사, 프로듀서, 프로그래머, 영화제 운영위원장…. 그를 수식할 수 있는 직업은 한 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그만큼 삶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매일의 삶이 질문을 던지는 날들, 매일의 삶이 화두 자체인 삶 속에서 저자는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영화를 통해 치열하게 그 답을 찾는다.

이 책의 첫 장을 여는 1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안에는 작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영화 '미나리' 와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닥터 스트레인지' ,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당신의 사월' 을 포함한 6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1부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전반에는 액션부터 코미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담은 다채로운 영화들이 소개된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반드시 어렵지는 않다는 것을, 한자로 가득한 경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여정 곳곳에서 언제든 불교의 교리와 마주할 수 있음을 일러주는 동시에 한 편의 영화에서 자신이 주목한 화두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교를 잘 모르는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이야기를 끌어간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간다. 때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히 노력해 보기도 하고, 마음의 짐으로 남겨 둔 채 살아가기도 한다. 화두란 불교에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마음 안에서 자연스레 피어오르는 그 모든 고민과 갈등, 즉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 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이자 영화평론가인 이안 작가는 〈삶이 물었고 영화가 답했다〉를 통해 불교적 관점으로 영화를 바라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본 영화가 '불교 영화' 뿐인 것은 아니다.

이 책에는 액션부터 코미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담은 다채로운 영화들이 소개된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불교의 가르침은 한자로 가득한 경전뿐만이 아닌 우리네 삶의 여정 곳곳에서 언제든 녹아 있음을 일러주는 동시에 한 편의 영화에서 자신이 주목한 화두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교를 잘 모르는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이야기를 끌어간다.

어려운 범어나 한자로 새긴 경전이 아닌
영화 곳곳에서 마주한 불교의 가르침들

불교 앞세우지 않고도 불가 가르침 풀어내는 법

이 책은 총 4부로 나누어진다. 1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는 '생과 사' 라는 화두를 안고 있는 영화 6편이 소개된다. 1부의 문을 여는 작품은 202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인 가족이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미나리' 다. 저자는 새롭고 낯선 터전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인물들의 지난한 삶의 여정을 따라간다.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암평아리는 살리고 수평아리는 죽이는 '병아리 감별' 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살생이 아니라 가꾸고 키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민자들의 고민과 갈등에 주목하는 한편 영화에 등장하는 '미나리' 가 상징하는 생명의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이야기한다.

그런가 하면 불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환생' 과 '변신' 을 주제이자 스타일로 풀어낸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감독의 영화 '엉클 분미' 에서는 죽음을 앞둔 '분미 아저씨'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거대한 순환의 과정을 발견하며 영혼과 전생과 만물에 불성(佛性)이 있음을 깨닫는다.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모든 것은 흘러가고, 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으며 (…) 그 흐름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자가 된 닥터 스트레인지" 캐릭터가 겪는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불교를 앞세우지 않고도 불가의 가르침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오락물 안에서 설명하는 흥미로운 영화"라고 소개한다.

'자비'와 '용서'로 바라본 불교의 근원적 가르침

2부 〈세상 가장 낮은 목소리〉에서는 이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모든 '낮은 목소리' 를 대변하는 영화 8편에 대한 글을 엮었다.

언뜻 불교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코미디 영화 '정직한 후보' 에서도 저자는 불교의 이상적 왕인 '전륜성왕' 과 그가 전파한 가르침을 함께 엮어낸다. 경전 〈전륜왕사자후경(轉輪王獅子吼經)〉에서 언급되는 내용인 "진리에 따라 국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법의 파괴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국민이 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제지해야 한다"라는 근원적이고도 변하지 않는 교리를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비교하고, 또 이런 상황을 코믹하게 풀어낸 영화에 대해 "권력을 탐하는 비리의 온상"인 한국 정치판 한가운데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전륜성왕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회"보다는 국민들 또한 바른 눈으로 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뭇 생명은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존재

3부 〈생명을 품는 마음〉에서 소개된 10편의 영화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와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들과 우리를 포함한 생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저자는 '미스터 주: 사라진 VIP' 에서는 이 한 편의 영화로 인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동물들의 목소리"에 자연스레 귀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나아가 천성산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도 불사한 지율스님의 마음을 되새기고, "뭇 생명이 이 세상의 VIP이고, 그 중생들을 지키고 살리는 일"의 중요성을 마치 "절에서 범종과 목어, 운판과 북을 울리듯" 영화와 그 영화에 깃든 웃음으로 문득 깨우친 자신의 내면을 새삼 발견하기도 한다. 또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에서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 의식이 천도재라면, 이 영화는 고독사한 불행한 사람의 영혼을 성불시키는 영화적 천도재"로 소개하며 영화의 핵심적 메시지와 불교 교리를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비유로 연결시킨다.

삶은 곧 수행이다

4부 〈무한한 인연, 희망의 연꽃〉은 인연을 바탕으로 희망을 꿈꾸는 영화 6편을 담았다.

2021년 개봉한 영화 '기적' 안에서는 "발원을 세우고 더 나아가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하늘이 돌보아 뜻을 이루어주게 되는 지극한 힘", 즉 가피력에 주목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철길을 따라서 가는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집에 가야 했던 봉화 산골 주민들이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역 건물을 세우고, 승강장을 만들고, '양원역' 이라는 이름까지 손수 지어 마침내 그곳에 기차를 서게 만든 놀라운 실화를 한 이 영화를 보며 저자는 정성을 다하는 진인사의 마음을 되새긴다. 그리고 이 공간을 "대중울력과 가피력이 깃든 기적의 공간, 그 자체"라는 말로 영화 속 인물들의 지극함에 대한 존경과 감동을 표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어느새 자신만의 화두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모호한 삶의 물음을 한 편의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 깃든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영화 곳곳에 스며든 불교의 교리들을 삶 속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에 비추어 대입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한 일종의 '수행 기록' 이기 때문이다.

▲저자 **이안**은?

서울대에서 미학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서 영상문화이론과 영화학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미디어오늘, KBS, YTN, 레디앙 등 다양한 매체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평론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공회대학교에서 영화에 대해 가르치는 강사, 독립 다큐멘터리 〈나의 노래: 메아리〉를 제작한 프로듀서, 예술영화 전용관인 '영화공간 주안' 관장 겸 프로그래머, 그리고 서울국제실험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주민영화제, 세이브더칠드런아동권리영화제 프로그래머를 거쳐 지금은 춘천SF영화제 운영위원장이자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발간하는 월간 〈통도〉에 '영화, 불교'라는 칼럼을 써오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김씨 표류기를 보면서, 그리고 코로나 19로 격리의 시대를 살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의 뜻을 다시 새기게 된다. '독불장군' 이라고 잘못 쓰이는 이 말은 사실 어떤 사람이라도 오랜 시간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담은 말이다. 나면서부터 부처인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격리의 시대에 '독존' 의 깨달음으로 다들 해탈하시기를."

〈김씨 표류기(2009)〉중에서서

"모든 것은 흘러가고, 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으며, 시간은 굴레가 아니라 흐름이기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흐름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자가 된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 [닥터 스트레인지]는 불교를 앞세우지 않고도 불가의 가르침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오락물 안에서 설명하는 흥미로운 영화다."

〈21세기의 불제자–닥터 스트레인지(2016)〉중에서서

2022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개막식 9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일정 | 2022. 9. 29-10. 2(4일간)
장소 | SETEC 서울국제무역전시컨벤션센터
*온라인박람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운영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 관 불교신문 불광미디어 BulkwangMedia
기획.운영 MIND DESIGN

2022 서울국제불교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리추얼(Ritual) 상품 및 서비스 전시
· 사찰건축, 전통 및 불교공예, 차, 다기, 문화상품, 생활상품, IT 및 서비스 등

제10회 붓다아트페어 Buddha Art Fair
· 전통·불교미술부터 불교철학을 담은 현대미술까지, 미술 오픈마켓
· 수산문도회, 한국불교미술공예협동조합의 단체전
· BAF청년작가공모전 수상작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릴레이 법문
· 삶의 지혜를 주시는 스님들과 연사들의 법문과 강연

주제전
· 괘불 미디어아트 '행자즉불, 수행자가 곧 부처라' 전
· 임석환 불화장 특별 초대전 '나는 붓다를 보았다'전
· 사찰 제작 수행 용품 초대전 '108사찰콘텐츠'전

국제교류전
· 중국, 대만, 네팔 등의 특색 있는 공예품 및 상품 소개

라이브커머스 & 크라우드펀딩
· 참가업체의 상품들은 온라인에서 보고 구매하는 라이브커머스와 전통문화우수상품공모전 수상작들의 크라우드 펀딩 진행

관람문의 > 2022서울국제불교박람회사무국
T. 02. 2231. 2013 W. www.bexpo.kr E. bexpo@daum.net

지금 사전등록하면 무료입장!

문의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사무국
전 화 02-2231-2013
이 메 일 bexpo@daum.net
홈페이지 www.bexp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bexpo